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강기연*, 김종훈*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e-mail:child@gnu.ac.kr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elf-Regula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Kang Gi Yeon*, Jonghoon Kim*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설명력이 더욱 높아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중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음을 지각한다면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서론

1980년 중반 이후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대두된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주요한 요인이며, 교수내용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중학생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학업 참여를 위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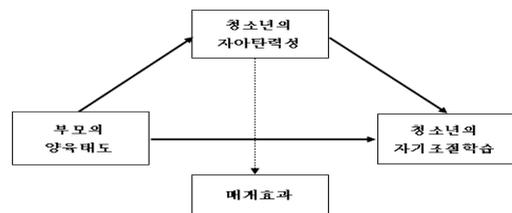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3].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 사회적 능력, 스트레스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4].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하다[5].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신뢰감과 같은 자아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생 시기에 자아탄력성

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6]. 즉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자녀의견에 대한 존중,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도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Mohan, V., & Verma, M.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 간에 높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7]. 또한 이현주, 권수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영향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학생 남녀학생 300명이며, 설문지 25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김태명,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 태도척도(PSCQ_KA) 24문항을 사용하였다[9]. 둘째, 자아탄력성은 김미향과 김성희(2010)가 개발한 중학생용 자아 탄력성 척도 39문항을 사용하였다[10]. 자기학습조절학습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정선과 김세영(2006)의 중학생용 자기조절학습 척도 41문항을 사용하였다[11]. 자료의 처리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학습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따스함과 구조제공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그들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친밀행동, 감정조절, 긍정사고, 문제해결, 자율행동, 자아탄력성 전체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과 구조제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Blumenfeld, P. C., Marx, R. W., Patrick, H., Krajcik, J., & Soloway, E. (1997). Teaching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handbook of teachers and teaching, 819-878.

- [2]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3] 최현철, 엄우용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동기, 정서지능, 자기조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9(1), 91-113.
- [4] Carver, C. S., & Baird, E. (1998). The American dream revisited: Is it what you want or why you want it that matters?. Psychological science, 9(4), 289-292.
- [5]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의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황여정, 김경근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24(1), 205-229.
- [7] Mohan, V., & Verma, M. (2020).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relation to academic resilienc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9(3), 27-34.
- [8] 이현주, 권수정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에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47-355.
- [9]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10] 김미향, 김성희 (2010). 아동, 청소년상담: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11]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